가정 예배 모범

- 2021_12_05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2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사사기 18장 1~ 20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사사기 18장 1절은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까?(1절)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그때까지도 땅이 없어서 거주할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미 단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땅은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통해 분배받은 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이때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단 지파는 거주 할 땅을 찾아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 지파는 살 땅을 찾으려고 다섯 명의 용감한 사람들을 뽑아서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단 지파의 다섯 사람들은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을 정탐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미가의 제사장인 베들레헴 출신의 젊은 레위인에게 자신들이 행보를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도, 그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복전쟁 조차 완수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합니까?

2) 단 지파는 600명의 군대와 함께 미가의 집으로 가서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또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11-20절)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사람은 단 지파의 다섯 사람에게 주님이 길을 예비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정탐꾼은 라이스에 도착했고, 그 땅을 정복하자고 합니다. 단 지파는 라이스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러 우상을 취하고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젊은 레위인에게 미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기 보다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젊은 레위인은 돈과 명예에 이끌리는 삶을 삽니다. 미가와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자 고향을 떠나 미가의 집으로 왔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미가의 집이 약탈을 당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더 큰 이익을 따라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나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욕심을 만족시키는 어떤 이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길 바랍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